[국내외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영향 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가축질병에 대한 이해(p.9~)

과거 대비 현재 가축질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모든 축종(한우, 돼지, 가금 등)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전파력, 병원성, 국내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동물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전파가 빠르며 사회적, 경제적, 공중위생상 피해가 큰 전염병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해당됩니다.

국내 발생 동향 및 영향(p.17~)

국내에 발생했던 가축질병은 2010~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4월까지 제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 약 15만 마리, 돼지 약 332만 마리 등이 살처분되며 가격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올해 국내에 발생했던 가축질병은 구제역 3건(살처분은 한우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0.01%),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살처분은 돼지 전체 사육마리수의 약 1.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62건(살처분은 산란계 전체의 약 14%)이 있습니다. 가금류, 계란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파급 가능성(p.39~)

해외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가축질병 사례로는 2024년말부터 2025년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5,000만 마리가 넘는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심각한 계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계란 가격도 급등했습니다.